

- 본문 : 요한일서 4장 7~12절
- 제목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좋은 사람이나 사랑할 만한 사람을 볼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따스함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응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표준’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며, 또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야 합니다. 이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고백의 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혈관 속에도 이 사랑이 피처럼 흐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인 적이 있습니까?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랑하라”는 명령형의 권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이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7a절)
2.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7b)라고 말하는 요한의 표현에서 “나서(출생하다)”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8절)고 할 때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하는 점을 어려워합니다. ‘사랑과 심판, 과연 이 둘이 공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당신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4.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난 동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9~10절, 요 3:16)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사랑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즉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 사건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자국민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가족이 잔혹하게 처형되는 현장에서 간신히 목숨을 구한 14살의 레악사 힘(Rdaksa Himm)이라는 소년이 훗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 가족을 죽인 잔인한 자들에 대한 분노와 상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들을 찾아가 직접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며, 그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자를 생각하고,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말씀기도제목

1.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DNA가 “사랑”임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2. 원수와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이 “하나님 사랑의 표준”임을 알아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로 주님을 묵상할 때 “피 묻은 십자가”와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